

지역마다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원조' 혹은 '할머니'라고 적힌 간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어온 전통과 노하우로 남다른 맛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 대에 걸쳐 내려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신뢰가 가고, 때로는 존경심마저 듭니다. 그들의 재능과 뛰어난 기술은 물론, 그 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 3대에 이른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입니다. 진실이란 '참됨, 순수한, 성실함, 신용할 만함' 등의 뜻을 가진 말로, 위선과 외식과 불성실함의 반대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위선과 외식, 즉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도 믿음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재산을 유업으로 남깁니다. 또한 지위나 권력이나 기술 혹은 학문과 명예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정신과 진실이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살아생전의 부모님, 가족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 신앙의 본과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신 그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특히 자손들이 신앙을 물려받아 하늘의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새겨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습을 기뻐하며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조용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기도

믿음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추모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손을 향한 조상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귀중한 신앙 유산을 대대로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 석 가정·추도 예배



기독교 영등포중앙교회
대한관리회

서울시영등포구영중로 163 02) 2631-5721

예배순서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작말씀 / 인도자

찬 송 / 다같이

가정예배시 588장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추모예배시 435장 /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도 /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봉독 / 인도자

말 씬 / 인도자 (첨부된 설교문을 읽어주십시오)

가정예배시 / 스바냐 3장 14-20절
추모예배시 / 디모데후서 1장 3-5절

묵상기도 / 다같이

찬 송 / 다같이

가정예배시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추모예배시 438장 / 내 영혼이 은총 입을

주기도문 / 다같이

설교문 가정예배용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던 기원전 630~625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에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때로, 스바냐가 전한 주요 메시지는 '여호와와 나'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도 동시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심판'만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도 함께 전합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강력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14). 또다시 하나님께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 기운을 잃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까닭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잠잠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라쉬'는 '침묵하다', '조용히 하다'라는 뜻과 함께 '조각하다', '쟁기질하다'와 같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생명을 키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고후5:17)'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이 말하는 '처음 사랑(프로텐 아가펜)'의 바른 뜻입니다.

성도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직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